

# 말씀의 샘

## 드림과 예배 <출애굽기 35:20~29>

오늘은 헌신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가 어렵게 여겨지고, 또 성도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헌신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신에 대한 메시지가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오래 믿은 분들이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는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신이 있어야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런 헌신과 드림이 없는 이기적이고도 인색한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는 것만 많아서 머리만 큰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계산만 있고 행하기를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발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레위기 1~6장까지의 다섯 가지 제사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예배가 분류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예배인데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드리는 제물이 곧 제사의 종류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곧 그 제사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극빈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무엇든 그 형편에 따라 다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예배의 정신만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면 교회를 자칫 떠날 수 있고,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자원함에 말긴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춰 가다보면,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시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두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드림이 예배입니다.**

아까 레위기 1~6장까지 다섯 가지 제사는 그 자체가 드림이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성격과 명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제사를 진행할 때,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방식에 따라 처리하며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상 제사의 시작은 번제단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의 시작은 성막 뜰로 들어가면 출입문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정성껏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점검을 받는 곳이 제사의 시작점입니다. 과연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지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점검받는 곳부터 제사는 시작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예 빈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때 같았으면, 아예 성막 뜰로도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림이 없는 예배를 하려하니 영적으로는 성막 밖에서 아무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제물 없는 예배, 드림이 없는 예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16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찌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매주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 외 많은 절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오고 계십니까?

'예배(Worship)'라는 용어는 앵글로색슨 어인 Weorth-Scipe 에서 파생한 단어로, '어떤 존재나 대상에게 가치(worth)를 돌린다(ascibe)'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를 "Service"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서로 서로 서비스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것이지,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중에 드린 예배 가운데 꽃은 바로 모리아산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22: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드리고 받는 Service인 것입니다. 아무 것도 순종하지도 결단하지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은혜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둘째, 드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서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

**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너무 나쁘게만 또 지나가는 말로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앞에 몸으로 심으면 건강으로, 물질로 심으면 경제적 풍성함과 형통으로, 기도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돌려받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고 심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35: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들은 모세를 통해 성막건축의 필요를 듣고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 모른체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5: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리고는 수많은 물품의 종류들을 각자가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드린 모든 것으로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습니다.

**출애굽기 40: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하매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그전에 자원하여 드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역대상 29:9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시니라**

이 성전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위에 세워진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대우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든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에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17년 2월 26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7. 3. 5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 표 기 도 ----- 곽 지은 셀장**

**헌 금**

**성 경 봉 독 ----- 민수기 2:1~2**

**말 씀 선 포 ----- 이 강화 목사**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말씀의 전파와 영성의 균형적 성장을  
**두란노 교회**  
DURANNO CHURCH

